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운

샬롬!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이스라엘은 사계절의 변화가 절기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이를테면 우기의 시작은 장막절 이후에, 건기의 시작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얼마 전 유월절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건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4종류의 기후가 존재합니다. 브엘셰바 밑으로 남부지방은 사막기후, 예루살렘과 같이 높은 산지에 위치한 곳은 산지기후, 자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나 마을들은 자중해성 기후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은 열대성 기후입니다. 현재 갈릴리의 한낮 기온은 섭씨 34-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예루살렘하고는 거의 10도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다가올 본격적인 여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름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40도 이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 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네게브 사막에 살지 않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갈릴리에서 보내게 되는 매일의 삶이 새롭고 또 기대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계절처럼 이곳에서의 삶도 사역도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 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이스라엘에서 맞는 유월절과 부활절 풍경

이번 유월절 기간에는 나사렛 빌리지에서 준비한 특별 순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일주일의 사건과 부활 사건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문배우들이 재현하였고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마다 마치 제가 그 때 그 무리들 중 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현장의 목격자로서 맞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절은 늘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함께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바로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특별하고 또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말씀에 명시된 대로 보내고 그 날의 의미를 마음 속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주어진 유월절 명절 기간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특별 휴가를 갖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찾아와 야영을 하며 며칠씩을 보내다 갑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엿보는데 그쳤지만 다음에는 함께 야영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갈릴리를 찾는 VIP들 특히 젊은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폴란드 출장과 배움의 적응

기도해주신 덕분에 폴란드 출장은 잘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여기고에서 가졌던 모임에 이어 저에게는 두 번째 모임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팀에 적용할 만한 유익한 정보와 전략을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처음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 접촉하는 방법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요령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조만간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베이트 가브리엘’) 청년들을 찾아가 만나려 합니다. 예비 된 영혼들을 만나 깊은 교제와 나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앞선 미국 팀의 전략과 사역 플랫폼은 견고하고 또 잘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잘 익혀서 우리 한국 팀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서로가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까이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팀도 이 땅의 사역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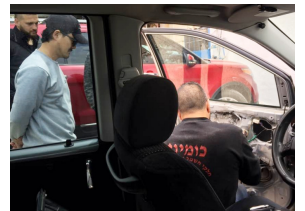
■ 베두윈 마을 이야기 (요세프의 죽음)

오랜만에 베두윈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종교비자 문제로 이스라엘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방문하기까지 1년 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베두윈 마을 사람들 그간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꼬마 여자아이일 때 처음 만났던 ‘라합’과 ‘하딜’은 시집을 갖고 그간에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자라 몰라보게 성숙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혹은 나를 몰라보는 아이들도 있지는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이브라힘’과 ‘마흐무드’와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 속에서 지난 3월 19일 마흐무드의 첫째 아들 ‘요세프’(12세)가 양을 치러 나갔다가 근처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이 40일째 되던 날인데 아직까지 아들을 잃은 부모의 모습 속에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엄마인 ‘네쓰린’은 그리움에 사무쳐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란 걸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 동정의 마음으로 함께 아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흐무드’와 ‘네쓰린’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안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집들이와 가정심방



계속 이어지는 차수리



나사렛 마을에서 (고난)



나사렛 마을에서 (부활)



유대인들의 유월절 휴가



폴란드 회의 후 만찬



요세프의 죽음

「 기도제목 」

Jewish Cluster Ministry Team

1. 베두원 마을 사람들 특히 네쓰린(요세프 엄마)과 마흐무드(요세프 아빠)에게 위로와 평안이 임하도록
2. 지역 협력 교회 그리고 코리엘(Koriel) 사역과 관련된 길이 열리고 동역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5월 16일 한국을 방문하는 ‘씨마’ 아주머니와 ‘모리아’의 한국 방문 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4. ‘베이트 가브리엘’ 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5. 아이들 홈스쿨과 관련하여 언어(영어,히브리어) 수업을 담당해줄 예비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